

# 프레게 맥락원리의 한 해석<sup>1)</sup>

최 원 배  
(강원대, 서울대 강사)

## 1.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서의 맥락원리

아마 프레게가 주장한 여러 철학적 견해 가운데 “단어는 명제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맥락원리(the context principle) 만큼 프레게 학자들 사이에 논란거리인 것도 드물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 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맥락원리를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해석하는 견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서의 맥락원리의 해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프레게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레스닉, 더미트, 라이트 그리고 헤일을 들 수 있다.<sup>2)</sup> 이 가운데 필자가 앞으로 주로

- 
- 1)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 논문 “프레게 철학에 있어서의 맥락원리” 5장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 2) 이들이 맥락원리를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만을 든다면 Resnik (1976); Dummett (1981a); Wright (1983), Hale (1987)이다. 프레게가 맥락원리를 내세울 때 쓴 ‘의미’에 해당하는 말은 독일어 *Bedeutung* (지시체)으로 이는 1891년 이후 *Sinn*(뜻)과 뚜렷이 구분되는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산술의 기초』는 프레게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기 이전에 씌어진 저작으로 이때 이미 프레게가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두고 *Bedeutung*이란 말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산술의 기초』에서 프레게는 *Bedeutung*이나 *Sinn* 그리고 *Inhalt*(내용)를 별 구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맥락원리를 해

논의하게 될 견해는 라이트와 헤일의 것으로 이들은 맥락원리가 프레게의 플라톤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록 라이트와 헤일이 프레게의 플라톤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 학자이긴 하지만 이들의 기본 생각은 맥락원리에 관한 더미트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sup>3)</sup> 우선 더미트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겠다. 더미트는 자신의 1956년 논문 「유명론」에서 처음으로 맥락원리를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경우 맥락원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떤 단어가 고유 명(proper name)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유 명이다. 만약 우리가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장의 뜻을 고정했다면,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한 것이다. ... 그 이름이 ... 실제로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더 이상의 철학적인 물음은 없다 (더미트 자신의 강조).<sup>4)</sup>

---

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즉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도 않은 시기에 맥락원리를 뜻이나 지시체와 관련된 원리 가운데 어느 하나로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이후의 틀을 끌어들이는 건강부회 식의 해석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오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맥락원리를 뜻이나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해석하려는 것은 그럴 경우 맥락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혀보려는 시도로서의 하나의 가설적 제안일 뿐 뜻이나 지시체에 관련된 원리이어야 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맥락원리에 대한 라이트나 헤일의 견해가 더미트의 견해와 같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되겠지만 더미트는 이들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
- 4) Dummett(1956), 40-41쪽. 더미트가 맥락원리를 해석하는 두 가지 가능성, 즉 뜻에 관한 원리로서의 맥락원리와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서의 맥락원리의 해석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이후인 Dummett(1981)에 와서부터이다(Dummett(1981), 14장 참조). 하지만 더미트는 그의 (1956)부터 (1991)에 이르기까지 맥락원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맥락원리를 간주하는 것이 『산술의 기초』에서 프레게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견해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맥락원리에 따르면 한 표현이 대상을 지시한다고 간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첫째 그것이 고유 명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장이 일정한 뜻을 갖는다는 것이다.<sup>5)</sup>

이들 인용문이 시사하듯이 더미트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대상이란 개념과 그것의 언어적 상관자인 고유 명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의 뜻의 확정과 관련되어 있다. 더미트에 따를 때 일단 이들 두 가지가 만족되면, 주어진 고유 명이 지시체를 갖는다는 것, 또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더미트는 맥락원리를 이렇게 해석할 때 이는 존재 한량기호에 의해 표현되는 존재의 뜻과는 다른 또 다른 철학적 의미의 존재 개념은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짝수인 소수(素數)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수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존재 개념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더미트는 맥락원리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어떤 표현이 나타내는 대상을 직접 대면한다든지 혹은 이것이 바로 그 대상이다라고 지적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악한 수준의 유명론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sup>6)</sup>

그러나 그의 최근 견해로는 그의 (1995)를 참조.

5) Dummett(1981a), 382쪽.

6) Dummett(1956), 40-41쪽 ; Dummett(1981), 497-498쪽 ; Dummett(1981a), 386-387쪽 참조.

사실 프레게에게 있어서 한 표현과 그것의 지시체 사이의 관계는 별로 복잡하지 않다. 어떤 표현이 고유 명이면 그것의 지시체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한 표현이 고유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것이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미트는 이를 좀더 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주장은 먼저 언어적 범주 구분이 존재론적 범주 구분에 선행한다는 것과, 둘째로 이들 두 범주가 꼭 일치한다고 것을 함축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두 번째 주장을 ‘일치 논제’(the matching thesis)라 부르기로 한다. 첫 번째 주장은 “설명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우리는 고유 명이란 일반 개념을 대상이란 일반 개념에 앞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고유 명이란 개념을 먼저 얻지 않고서는 대상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sup>7)</sup>는 것이다. 라이트는 이를 좀더 분명히 표현하여 프레게의 맥락 원리가 ‘구문론적 우선성 원칙’(the thesis of syntactic priority)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설명하여 “대상 개념은 설명의 순서상 단칭명사라는 개념 이후이고 대상 개념을 단칭명사와 지시체 개념에 앞서 설명할 아무런 좋은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sup>8)</sup>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구문론적 우선성 논제가 과연 프레게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프레게가 수는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 때 언어상의 특징<sup>9)</sup>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프레게

7) Dummett(1981a), 234-235쪽.

8) Wright (1983), 24쪽. 여기서 고유 명과 단칭 명사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자.

9) 가령 대상 표현은 정관사나 지시 대명사와 함께 쓸 수 있고, 복수를 용인하지 않으며, 동일성 문장에서 나타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는 다음 두 주장 가운데 첫 번째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 (1) 수 표현이 고유 명이기 때문에 수는 대상이다.
- (2) 수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 표현은 고유 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프레게가 언어상의 특징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 곧 바로 이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두 번째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프레게가 언어적 특징을 거론하는 이유는 다만 우리의 일상적 용법이 수가 대상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잘 지지해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미트 자신도 사실 나중에 프레게가 구문론적 우선성 논제를 분명하게 주장한 문헌상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고 프레게가 이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견해가 프레게의 생각과 일치하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프레게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0)</sup>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더미트나 라이트는 언어적인 범주구분이 존재론적 범주구분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가? 한때 두 번째 주장, 즉 (2)를 옹호한 바 있는 기치<sup>11)</sup>에 맞서 더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논증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떤 주어진 것이 대상인지 아니면 개념인지 함수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탐구란 없다. 우리는 어

10) Dummett(1981a), 235쪽.

11) 기치는 처음에 그의 (1961)에서 두 번째 주장을 지지했지만 나중에 그의 (1975)에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첫 번째 주장을 지지한다.

떤 것에 관해 그것이 어떤 특정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던가 제시되지 않고는 아무런 사상(thought)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프레게 철학의 근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제시되는 방식은 그것을 지시하는 가능한 표현의 뜻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표현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지, '포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완전한지, '불포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 불완전하다면, 그것이 몇 개의 논항 자리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 유형의 표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문체의 그 표현을 특징짓는 본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표현의 논리적 유형을 안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그것의 지시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된다. 즉 그 경우 그 표현이 지시하는 것이 대상인지 여부는 우리에게 문젯거리가 될 수 없다.<sup>12)</sup>

여기서 더미트의 견해는 프레게의 대상 개념에 근거함을 볼 수 있다. 세계의 사물에 우리가 다가가는 데는 그것이 제시되는 특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방법도 없다. 그리고 표현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특정한 제시 방식을 아는 것이다. 또한 한 표현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표현인지 불완전한 표현인지를 아는 것을 포함하므로, 우리는 그 경우 그것의 지시체가 어떤 종류의 실체인지를 알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어떤 표현의 뜻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의 지시체가 어떤 종류의 실체인지는 모른다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만약 구문론적 우선성 논제가 뜻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면 그 논제가 크게 논란거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도리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문론적 우선성 논제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필자가 일치 논제라고 부른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 표현이 대상을 지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

12) Dummett(1981a), 236쪽.

서는 이에 앞서 그것이 어떤 논리적 유형에 속하는 표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언어의 구문론적 구조가 실재의 믿을 만한 안내자라는 것, 즉 언어적 범주와 존재론적 범주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더미트가 구문론적 우선성 논제와 일치 논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구절은 그가 일치논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27’이 단칭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실재를 범주 구분하는 원칙으로부터 우리가 언어적 표현을 범주 구분하는 원칙을 갈라놓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은 프레게 철학 전체의 핵심이다. 나는 언어적 범주 구분이 존재론적 범주 구분의 열쇠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해에 일정한 우선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그들은 서로 일치해야만 한다. 만약 한 표현이 고유 명처럼 기능한다면 그것은 고유 명이고, 따라서 만약 그것이 무언가를 지시한다면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대상이다. 그것이 (참인 문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 표현이 고유 명으로 쓰이고 있지 않던가 혹은 쓰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뜻할 때에만 의미 있는 주장이 된다 (필자의 강조).<sup>13)</sup>

이 일치 논제는 언어와 실재에 관한 특정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만한 든든한 별도의 논증이 없는 한 이 견해가 설득력을 지니는 지는 의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일치논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프레게 자신의 말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사고의 신뢰가능성을 위협하는 언어의 한 특징은 아무런 대상도 대응하지 않는 고유 명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다. 만약 이런 일이 소

13) Dummett(1981a), 384쪽.

설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그 주장이 엄밀히 과학적이라고 하는 언명의 경우 일어난다면 사정은 다르다. 특히 눈에 띄는 이런 예는 ‘개념 a의 외연’과 같은 형태, 한 예로 ‘개념별의 외연’과 같은 고유 명을 만드는 것이다. 정관사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이 언어적으로 적절히 지시한다고 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4)</sup>

물론 이 문장은 프레게가 러셀의 역설을 알게 된 이후 쓴 것이긴 하지만, 프레게가 언어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러셀 역설 이전에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프레게가 『산술의 기초』에서 수 언명에 대한 그의 분석이 독일어 일상 용법과도 잘 맞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절(節)에서 그는 일상어의 용법이 또한 잘못된 믿음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5)</sup> 필자는 일상 언어에 대한 프레게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일상 언어의 용법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또한 일상언어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일차 논제를 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가 분명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를 좀더 설득력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표현이 참된 고유 명이기 위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데 지켜져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의 문제는 뒤에서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당분간 그런 기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만약 주어진 표현이 그런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곧 한 대상을 지시한다고 말할

14) PW, 269쪽.

15) FA, 52절 참조. 또한 TPW, 45쪽도 참조.



수 있을까? 올바른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현에 지시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미트와 라이트나 해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 더미트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문제의 고유 명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의 뜻을 정하는 것이 그 표현에 지시체를 부여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썩 올바른 견해 같지 않다. 왜냐하면 프레게는 빈 고유 명을 포함하는 문장도 뜻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를 프레게는 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허구의 영역의 문제로 돌려버린다. 또한 프레게는 빈 고유 명을 포함하는 문장은 진리치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는 1891년 이후 견해에 걸맞은 주장은 한 표현이 지시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오는 문장의 일부가 진리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sup>16)</sup> 라이트와 해일은 분명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라이트는 맥락원리에 근거한 프레게의 플라톤주의가 수 표현이 단지 구문론적으로 단칭명사로 기능한다는 것에서 바로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가 단칭명사라는 것과 이들 수 표현이 단칭명사로 기능하는 참인 언명이 있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7)</sup>

이제 우리는 맥락원리를 지시체에 관한 원리로 간주할 때 어떻

16) 파슨스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 Parsons(1965), 186쪽 참조. 이 문제에 대한 더미트의 견해를 위해서는 그의 (1981a), p.383 ; (1991), 186-187쪽 참조.

17) Wright(1983), 3절과 8절 ; Wright(1988) ; (1990) ; Hale(1984) ; (1987), 1장 참조.

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프레게의 플라톤주의를 위한 논증이 되는 지를 대략 알 수 있게 되었다. 첫 단계에서 어떤 표현들이 고유 명명이 가려지는데 이는 아직 그것이 지시체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첫 단계를 통해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의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일단 그런 표현이 나오는 어떤 문장이 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표현에 지시체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 명의 의미론적 기능은 바로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주어진 종류의 이름이 단칭명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포함하는 어떤 문장이 일상적 기준에 의해 참임이 검증된다면, 이로부터 이들 이름은 참으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이 이끌어져야 한다.<sup>18)</sup>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삼아 수에 관한 프레게의 플라톤주의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수 표현이 구문론적으로 단칭명사로 기능한다.  
이들 표현이 단칭명사로 기능하는 참인 언명이 있다  
따라서 수가 존재한다.<sup>19)</sup>

헤일을 따라 이 논증을 ‘프레게 식 논증’(Fregean Argument)이라 부르기로 하자.<sup>20)</sup> 그러면 이 논증은 합당한가? 이 물음에 대

---

18) Wright(1983), 14쪽.

19) Hale(1987), 11쪽 ; (1984) 참조.

20) Hale(1987), 11쪽.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전제가 받아들일 만한가, 그리고 만약 받아들일 만하다면, 이 논증대로 우리는 돌이나 나무가 실제의 일부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똑 같은 의미에서 수도 존재한다는 것을 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문론적 우선성 원칙에 따를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이 고유 명인지를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표현이 고유 명임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그것이 대상의 이름이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한 표현이 참된 고유 명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가? 더미트는 그의 책 『프레게 언어철학』4장에서 고유 명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는 다른 표현은 안 되지만 단칭명사가 어떤 자리에 나올 경우 타당한 추리의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데 착안하고 있다. 그리고 더미트가 그런 기준을 제시한 이래 라이트나 헤일은 그 기준의 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왔다.<sup>21)</sup> 웨즐은 이런 노력을 프레게-더미트 계획(Frege-Dummett project)이라 부르고, 이를 무엇이 존재하는가의 존재론적 물음이 무엇이 단칭명사인지의 언어적 물음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2)</sup> 웨즐은 더미트나 라이트, 헤일 등과는 달리 이런 계획에 아주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더미트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겠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 제시된 단칭명사의 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런 계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21) Dummett(1981), 4장 ; Hale(1979) ; (1987), 2장 ; (1994a) ; Wright(1983), 9절 참조.

22) Wetzel(1990) 참조. 또한 Stirton(1994)도 참조.

런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순환적임을 보이는 것일텐데 필자는 아직 그런 논증을 보지 못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완벽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 단칭명사라는 철학적으로 훨씬 더 흥미롭고 논의해 볼 만한 문제가 남는다는 점이다.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플라톤주의 대 환원주의

데미트나 라이트 그리고 헤일이 제시한 단칭명사의 기준에 의할 때 다음에서 밑줄 친 표현은 모두 단칭명사로 간주된다.

대통령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여전히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의 신원을 찾고 있다.  
국무총리의 나이는 몇몇 측근들에게만 알려져 있다.

그러면 만약 위의 문장들이 참이라고 할 경우 우리는 대통령이 나 김철수의 살해범 그리고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행방이나 그 살해범의 신원 그리고 국무총리의 나이 등과 같은 대상도 존재한다고 해야 하는가? 이는 적어도 프레게 식의 논증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던가 아니면 적어도 단칭명사의 기준을 모색하려는 시도 자체가 별 가망이 없는 작업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반응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어떤 사람은 이런 추상적인 기괴한 대상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런 종류의 명제를 설명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문장에서 ‘대통령의 행방’이란 표현을 바꾸어 원래 문장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고쳐 말할 경우 문제의 그 표

현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프레게 식의 플라톤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이런 환원주의적 전략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해야만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라이트나 헤일은 위의 예가 더 엄밀한 단칭명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단칭명사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으로 그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라이트나 헤일이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첫째로 바꿔쓰기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거하려는 시도 자체가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의문시한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바꿔 쓴 문장은 여전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단칭명사의 기준을 통과하는 표현이다. 둘째로 라이트는 우리가 환원주의 전략을 꼭 택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프레게 식의 플라톤주의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원주의 전략 자체를 문제삼는지를 알기 위해 프레게 자신이 들고 있는 예를 하나 살펴보자.<sup>23)</sup> 'a'와 'b'가 구체적인 선의 이름이라 하고 이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다고 하자. 그리고 'a의 방향', 간단히 표현해서 'D(a)'와 'b의 방향', 'D(b)'는 방향을 나타내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이라 하고 두 선, a와 b가 평행하다는 것을 'a // b'로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D(a) = D(b) \text{인 경우 또 오직 그 경우에 한해 } a // b.$$

23) 이 예는 FA, 64절에 나오는 예이다.

추상적 대상의 존재를 회의하는 사람은 아마 환원주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a의 방향이 b의 방향과 같다”고 하는 말은 “선 a가 선 b에 평행하다”는 말에 해당하며, 이는 방향에 관한 우리의 논의가 선에 관한 논의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원주의자는 왼쪽 문장에 나오는 ‘a의 방향’이나 ‘b의 방향’이란 표현은 마치 단칭명사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단칭명사가 아니며 결국 왼쪽 문장은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향과 같은 추상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존재한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반대해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을 뒤집어서는 안 되는가? 왼쪽 문장은 방향을 지시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오른쪽 문장은 언뜻 보기에 방향을 지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오른쪽 문장이 바로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보지 못할, 다시 말해 오른쪽 문장이 ‘단순히 표층문법’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라이트 자신의 강조)<sup>24)</sup>

이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위의 인용문에서 라이트의 논점은 만약 존재론적 환원주의가 하나의 가능한 입장이 될 수 있다면 플라톤주의 또한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원주의자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참된 구문론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를 라이트는 되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라이트의 논증이 환원주의의 임의성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

24) Wright(1983), 31-32.쪽

면 그것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플라톤주의가 환원주의보다 덜 임의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라이트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원주의에 대해 제기했던 똑같은 물음을 플라톤주의에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플라톤주의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문장이 참된 구조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문장이라고 볼 이유가 있는가 하고 되물을 수 있다. 라이트 자신의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우리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존재론적인 우월성’(the ontological priority)<sup>25)</sup>을 가진다고 볼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환원주의자가 플라톤주의자에게 오른쪽 문장이 존재론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없다면, 같은 이유로 플라톤주의자 또한 환원주의자를 확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위의 라이트 문장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오른쪽이나 왼쪽 문장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참된 형식을 드러낸다는 주장을 논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를 때 라이트는 ‘액면 그대로의 논제’(the face value thesis)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액면 그대로의 논제란 오른쪽 문장뿐 아니라 왼쪽 문장도 각각 그들이 제시된 대로 참된 구문론적 구조를 드러낸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필드는 조심스럽게 라이트가 이 논제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sup>26)</sup>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라이트가 이후 발표한 논문의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다.

플라톤주의자나 환원주의자 모두 그 동치 문장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문법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환원주의자에게는 왼쪽 문

25) Wright(1983), 31-2쪽 참조.

26) Field(1984), 151쪽 참조.

장의 문법이 시사하듯이 추상적 대상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인 반면에 플라톤주의자에게는 오른쪽 문장이 시사하듯이 방향과 같은 것의 존재에 관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점이 잘못된 것이다.<sup>27)</sup>

여기서 ‘액면 그대로의 논제’는 우리의 논의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드는 이 논제를 지지하는데 이 논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 문장이 동치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왼쪽 문장은 그것이 글자 그대로 참이기 위해서 방향의 존재를 요구하는데 반해 오른쪽 문장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8)</sup>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 보면 문제의 문장을 보는데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 문제의 문장이 동치임을 거부하는 거부론자가 있는가 하면, 방향과 같은 추상적 대상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플라톤주의자가 있고, 이와는 반대의 해석을 하는 환원주의자가 있다. 플라톤주의자와 환원주의자는 오른쪽 문장과 왼쪽 문장이 동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나아가 플라톤주의는 인식론적 우월성(*the epistemological priority*)을 갖는 것은 오른쪽 문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도 환원주의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오른쪽 문장이 인식론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말은 왼쪽 문장의 의미가 오른쪽 문장의 뜻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으로 프레게 자신도 이것이 ‘사물의 참된 질서’라고 말한 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된다.<sup>29)</sup> 그러나 플라톤주의자와 환원주의자는 그들 두 문장이

27) Wright(1988), 439쪽.

28) Field (1984), 151쪽. 여기서 필드는 우리의 논의에 맞게 필드의 예를 고쳤다.

29) FA, 64절 참조.



어떤 점에서 동치인가 하는가를 두고 입장이 서로 다르다. 환원주의자가 보기에는 어느 문장도 방향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동치이며 이런 점에서 왼쪽 문장이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는데 비해, 플라톤주의자는 두 문장 모두 방향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동치이며, 바로 이런 뜻에서 오른쪽 문장이 우리를 오도한다고 보고 있다.

### 3. 몇 가지 문제점

그러면 위의 세 가지 시각 가운데 어느 것이 좀더 합당한가? 이 논문의 근본 목적은 맥락원리의 뜻을 밝혀 보려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프레게 식 플라톤주의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접근해 보기로 하자. 특히 필자는 여기서 프레게식 플라톤주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가 보았듯이 플라톤주의자는 문제의 문장에서 오른쪽 문장이 방향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오른쪽 문장 또한 실제로는 방향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주장을 헤일이 말한 대로 ‘감추어진 지시 논제’(the hidden reference claim)라 부르자.<sup>30)</sup> 이제 우리는 이 논제가 플라톤주의자가 시인하는 또 다른 논제, 즉 오른쪽 문장이 왼쪽 문장에 비해 인식론적 우월성을 가진다는 논제를 고려할

30) Hale(1994), 139쪽.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좀더 설명한다면, 만약 오른쪽 문장 또한 추상적 대상인 방향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장에 여전히 인식론적 우월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른쪽 문장이 인식론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이유는 그 문장은 방향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추상적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만약 플라톤주의자가 구체적 대상을 지각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괴델 식의 추상적 대상을 ‘지각’(perception)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위의 비판은 큰 타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레게 식의 플라톤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비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제기한 비판을 이미 예상하고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방향에 관한 문장을 선에 관한 문장으로 환원하는 요점은 방향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인과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합당한 제약 조건에 비추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적 문장의 경우에 암암리에 들어 있는 추상적 대상의 존재 가정을 환기시키는데 있다.<sup>31)</sup>

그러나 이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만약 감추어진 지시 논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 이는 선에 관한 문장과 같이 인식론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문장이 그것이 추상적 대상에 관한 지시를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문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기

---

31) Wright(1983), 89쪽.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추어진 지시논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오른쪽 문장이 참임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이다.

라이트는 나중에 유사한 비판에 대응하여 앞서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비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그 비판이 지시와 존재론적 개입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플라톤주의자는 선에 관한 일정한 언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연관된 방향의 존재에 개입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때 개입하게 되는 방향을 우리도 모르는 새 지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이트 자신의 강조).<sup>32)</sup>

만약 이것이 라이트의 최종 입장이라면 그는 이제 감추어진 지시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감추어진 지시라는 개념을 존재론적 개입이란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입장은 앞서의 비판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오른쪽 문장이 더 이상 방향에 관한 지시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이트의 새로운 입장은 오른쪽 문장과 왼쪽 문장의 관계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본대로 라이트는 문제의 두 문장이 동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라이트 자신이 인정하듯이 “한 문장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다른 문장은 그렇지 않다면 이들 두 문장이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일 수 없다”<sup>33)</sup>고 보아야 하므로 우리는 이들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사상

32) Wright(1988), 458쪽.

33) Wright(1988), 459쪽.

을 표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라이트나 헤일은 이후 그 두 문장이 동치라는 말은 그들이 같은 내용(content)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는 그들이 같은 사상(thought)을 표현한다는 것보다는 약한 관계라고 말하며, 같은 내용을 갖는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여 이는 같은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4)</sup>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액면 그대로의 논제와 이들의 이후 입장을 대비한다면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액면 그대로의 논제와도 거리를 두고자 하고 또한 환원주의자와도 다른 입장이므로 이 문제는 아주 미묘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문제의 그 두 문장이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액면 그대로의 논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여전히 이들 두 문장이 같은 정도의 존재론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의 논제를 여전히 거부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의 난점은 환원주의자가 오른쪽 문장이 참으로 방향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환원주의자가 오른쪽 문장은 방향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만 존재론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 여전히 해결점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추상적 대상의 인식과 관련된 일반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베나세라프가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수의 가정과 그것의 인식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지적한 이래 어떤 학자들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베나세라프의 비판<sup>35)</sup>이 토대를 두고

34) Wright(1988) ; (1990) ; Hale(1994).

35) 베나세라프의 논증을 위해서는 그의 (1973) 참조. 그의 논증이 수리철학에 미친 영향과 그 논증의 구조를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있는 인과적 인식론이나 지시론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프레게식 플라톤주의자들 또한 이런 시도를 하여 왔고, 이런 비판의 요지는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경험적 지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만큼의 비교적 온건한 인과적 지식론이나 지시론이 있다면, 그런 이론은 추상적 대상이라고 해서 극복될 수 없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36)</sup> 필자는 여기서 이들 논의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대신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프레게 논리주의의 재발견과 연관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레게의 다섯 번째 공리는 러셀의 역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라이트는 프레게로부터 여전히 일정 형식의 논리주의를 재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의 요지는 이른바 흄의 원리(Hume's principle)라고 하는 것을 이차 논리에 부가할 경우 산술의 일반 공리, 즉 페아노 공리들이 모두 이끌어진다는 것으로 이를 '프레게 정리'(Frege's theorem)라고 부른다.<sup>37)</sup> 그리고 『산술의 기초』에서 외연(extension) 개념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술의 근본법칙』에서의 치역(value-ranges) 개념은 궁극적으로 흄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것임이 알려졌다.<sup>38)</sup> 이는 곧 흄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순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라이트는 모순을 가져온 이들 개념을 도입하지 말고 바로 흄의 원리를 하나의 공리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흄의 원리가 어떤 성격을 띠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

논문으로는 Maddy(1996) 참조.

36) Wright(1983), 특히 11절과 Hale(1987) 4장 참조.

37) 최근 논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Demopoulos (1995)를 들 수 있다. 프레게의 정리란 말은 볼로스가 처음 쓴 말이다. Boolos(1990) 참조.

38) 특히 Heck(1995) 참조.

부각된다. 필드는 만약 흄의 원리가 논리적 공리가 아니라면, “이는 논리주의라고 불릴 만한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수 이론을 세우기 위해 논리적 공리가 아닌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주의의 전체 핵심”<sup>39)</sup>이기 때문이다. 사실 라이트 자신도 흄의 원리가 논리적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흄의 원리가 “논리학의 진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로 보아서 안되고, 도리어 기수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곧 설명적 정의(explanatory definition), 즉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정의가 그러하듯이 같은 이유로 분석적 진리라고 여겨질 수 있다”<sup>40)</sup>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주의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는 플라톤주의자가 문제의 두 문장이 동일한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하나의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즉 만약 그 문장들이 동치라는 말이 단순히 같은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것에 그치고 같은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이 분석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프레게식 플라톤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으로는 더미트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시 방향과 관련된 원래의 예로 돌아가 보자. 대략 말해서 더미트의 비판의 요지는 오른쪽 문장이 참이라고 할 경우 왼쪽 문장 또한 참이므로 우리가 방향이란 표현에 지시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지시 개념은 실재론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재론적 지시(realistic reference) 또는 강한 지시 개념(substantial notion of

---

39) Field(1984), 166쪽.

40) Wright(1995), 94쪽. 또한 그의 (1983), 18절 참조.

reference)과 약한 지시 개념(thin notion of reference)을 나누고, 프레게의 맥락원리가 허용하는 지시 개념은 후자일 뿐이며 이 때문에 맥락원리가 프레게의 실재론을 지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라이트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라이트는 『산술의 기초』를 쓸 때 프레게가 맥락원리에 근거해 맥락적 정의에 의해 도입된 이름에 기꺼이 지시체를 부여하고자 했을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산술의 기초』에서 맥락원리가 허용하는 약한 지시 개념이 아니라 『산술의 근본법칙』에서 사용된 강한 지시 개념이라고 가정한 데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sup>41)</sup>

그러면 어떤 근거로 더미트는 맥락원리가 허용하는 지시 개념은 약한 지시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가? 그는 맥락적 정의에 의해 우리가 한 표현을 도입할 경우,

그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상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그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 그와 동치인 문장에 도달하는 법을(아마 암암리에) 알게 됨으로써 매개된다. 그 표현의 지시체란 개념, 즉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의 지시체란 개념은 무엇이 그 사상을 참이나 거짓으로 결정하는 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나 따라서 우리가 그 사상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 표현에 지시체를 부여하는 것이 온건하게 보아 옹호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은 의미론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sup>42)</sup>

더미트의 이런 주장은 프레게식 논증의 전제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론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프레게식 플라톤주의자와 더미트의 견해차를 좀더 분명히 대비할 수 있다. 프레게식 플라톤주의자는 문제의 단칭명사가 나오

41) Dummett(1991), 199쪽.

42) Dummett(1991), 193쪽.

는 적절한 문장의 참은 그 단칭명사가 의미론적 역할, 즉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해 더미트는 그런 표현에 지시체를 부여하는 것이 옹호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시개념은 실재론적인 지시 개념이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방향 표현의 지시라는 개념은 문장 'D(a) = D(b)'의 진리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더미트의 비판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실재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시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 한 프레게 식 플라톤주의자는 실재론적인 지시체의 부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 지를 다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일은 “왜 플라톤주의자가 그 자체로 방향 표현이 실재론적으로 지시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약한 뜻에서만 지시를 하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sup>43)</sup>

둘째로 앞서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더미트는 『산술의 기초』와 『산술의 근본법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비록 우리가 더미트에 동의하여 『산술의 기초』에서는 맥락원리가 허용하는 지시개념이 실재론적 지시개념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프레게가 『산술의 기초』와는 다른 존재론을 『산술의 근본법칙』에서 주장했다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필자는 이런 해석이 두 시기를 일관적으로 보는 해석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레게식의 플라톤주의가 어느 정도 프레

---

43) Hale(1994), 138쪽.



계의 실제 견해와 가까운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필자는 프레게식의 플라톤주의가 방향에 관한 우리의 논의가 선에 관한 논의로 바뀌 쓸 수 있다는 것이 곧 바로 방향의 존재를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프레게는 확실히 논리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프레게가 그런 논리적 분석을 환원주의자의 시각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플라톤주의자의 시각에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프레게에게는 그런 물음 자체가 생소한 것으로 여겨질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프레게가 그 시대의 심리주의나 경험주의를 강력히 비판하였지만, 유명론이 프레게가 목표로 삼았던 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의 물음을 대답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또한 이와 연관해서 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이 프레게에게 과연 어느 정도 중요한 과제였는지의 물음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레게의 맥락원리가 『산술의 기초』에서 제시된 구체적 맥락(즉, 60절과 62절)은 수가 대상임을 논증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맥락원리에 기반을 둔 프레게식 플라톤주의가 프레게 자신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Benacerraf, P. (1973), "Mathematical Truth", *Journal of Philosophy* 70, reprinted in *Philosophy of Mathematics*, eds., P. Benacerraf and H. Putnam, 2nd ed. (Cambridge Univ. Press, 1983).
- Boolos, G. (1990), "The Standard of Equality of Numbers", in *Meaning and Method*, ed., G. Boolos (Cambridge Univ. Press), 261-77쪽.
- Demopoulos, W. (1995), ed., *Frege's Philosophy of Mathematics* (Harvard Univ. Press).
- Dummett, M. (1956), "Nominalism", *Philosophical Review* 65, reprinted in M. Dummett, *Truths and Other Enigmas* (Duckworth, 1978), 38-49쪽.
-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2nd ed. (Duckworth).
- (1981a), *The Interpretation of Frege's Philosophy* (Duckworth).
- (1991), *Frege: Philosophy of Mathematics* (Duckworth).
- (1995), "The Context Principle: Centre of Frege's Philosophy", in *Logik und Mathematik: Frege-Kolloquium Jena 1993*, heraus., I. Max und W. Stelzner (Walter de Gruyter), 3-19쪽.
- Field, H. (1984), "Critical Notice of Wright's Frege's Conception of Numbers as Object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4, reprinted in H. Field, *Realism, Mathematics and Modality* (Blackwell, 1989), 147-70쪽.
- Frege, G. (FA),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ans., J. L. Austin (Blackwell, 1950, 1980).
- (TPW),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ed. and trans., P. Geach and M. Black (Blackwell, 3rd ed., 1980).
- (PW), *Posthumous Writings*, trans., P. Long and R. White

(Blackwell, 1979).

- Geach, P. (1961), "Frege", in *Three Philosophers* (Cornell Univ. Press), 126-62쪽.
- (1975), "Names and Identity", in *Mind and Language*, ed., S. Guttenplan (Oxford Univ. Press), 139-58쪽.
- Hale, B. (1979), "Strawson, Geach and Dummett on Singular Terms and Predicates", *Synthese* 42, 275-95쪽.
- (1984), "Frege's Platonism", in *Frege: Tradition and Influence*, ed., C. Wright (Blackwell, 1984), 40-56쪽.
- (1987), *Abstract Objects* (Blackwell).
- (1990), "Nominalism", in *Physicalism in Mathematics*, ed., A. D. Irvin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121-44쪽.
- (1994), "Dummett's Critique of Wright's Attempt to Resuscitate Frege", *Philosophia Mathematica* 2, 122-47쪽.
- (1994a), "Singular Terms", in *The Philosophy of Michael Dummett*, eds., B. McGuinness and G. Oliveri (Kluwer Academic Publishers), 17-44쪽.
- Heck, R.G. Jnr. (1995), "Frege's Principle", in *From Dedekind to Gödel: Essays on the Development of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ed., J. Hintikka (Kluwer Academic Publishers), 119-42쪽.
- Maddy, P. (1996), "The Legacy of 'Mathematical Truth'", in *Benacerraf and his Critics*, eds., A. Morton and S.P. Stich (Blackwell, 1996), 60-72쪽.
- Parsons, C.D. (1965), "Frege's Theory of Number", in *Philosophy in America*, ed., M. Black (George Allen & Unwin Ltd.), 180-203쪽.
- Resnik, M.D. (1976), "Frege's Context Principle Revisited", in *Studies on Frege*, ed., M. Schirn (Friedrich Frommann Verlag, 1976), vol. III, 35-49쪽.

- Stirton, W.R. (1994), "A Problem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Proper Name'", *Philosophical Quarterly* 44, 83-9쪽.
- Wetzel, L. (1990), "Dummett's Criteria for Singular Terms", *Mind* 99, 239-54쪽.
- Wright, C. (1983), *Frege's Conception of Numbers as Objects* (Aberdeen Univ. Press).
- (1988), "Why Numbers Can Believably Be: A Reply to Hartry Field",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42, 425-73쪽.
- (1990), "Field & Fregean Platonism", in *Physicalism in Mathematics*, ed., A. D. Irvin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73-93쪽.
- (1995), "Critical Notice of Dummett's Frege: Philosophy of Mathematics", *Philosophical Books* 36, 89-102쪽.